

주님의 회복 안의 유일한 일

(금요일—오전 2부 집회)

메시지 5

성소에 대한 죄악 대(對) 금과 은과 보석들로 건축함

성경: 민 18:1, 고전 3:6-7, 9, 11-12, 16-17

- I. 민수기는 제사장들의 죄들이 성소에 대해 범하는 죄악들이었음을 보여 준다. 오늘날의 용어를 사용하면 그들의 죄들은 하나님의 일 안에서 범한 죄들이었다—민 18:1, 고전 3:12하.
- A.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범하는 죄들이 있지만, 주님의 일꾼은 그것에 더하여 또 다른 종류의 죄를 범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 안에서 범하는 죄들이다.
- B. 하나님의 일 안에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과 주권에 관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일에서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이며 성소에 대한 죄악이다.
- C. 하나님의 일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매우 중요한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요점 중 어느 하나에서라도 실패한다면 우리는 성소에 대해 죄악을 범한 것이다.
1.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어떤 일도 우리 자신이 시작할 수 없다—롬 11:36.
 2. 하나님의 일의 추진은 반드시 그분의 능력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어떤 일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 수행될 수 없다—행 1:8, 스펀 4:6, 빌 4:13, 딤후 2:1.
 3. 하나님의 일의 결과는 반드시 그분의 영광을 위해야 한다. 어떤 일도 우리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요 7:18, 엡 3:21, 고후 4:5.
- D. 성소에 대한 죄악으로 인한 세 가지 결과 혹은 형벌이 있다.
1.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린다. 즉 사람이 진부하게 된다.
 2. 영적인 죽음을 겪는다. 심지어 질병이나 육신의 죽음이 있을 수도 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그 범죄를 지속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비교 민 18:1-7, 고전 11:29-30.
 3.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심판대에서 성소에 대한 죄악보다 더 큰 죄는 없을 것이다—고후 5:10.
- E.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 반드시 오직 그분의 뜻이어야만 한다.
1. 우리는 그 무엇도 시작할 권리가 없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만이 그분의 모든 일의 유일한 시작이어야 한다.
 2.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속한 그 무엇도 평범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신선할 것인지의 여부는 영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신선한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 F. 하나님의 일의 추진은 반드시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없다.
1. 오직 하나님의 능력, 곧 하나님의 ‘통화(通貨)’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이다.
 2. 심지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안 후에도, 여전히 그 자신의 능력이나 구상이나 비범한 통솔력이나 언변에 의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애쓸 위험성이 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한 예이다—창 16:15-17:1.
 3. 일의 목표가 반드시 영적이어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과 수

단 또한 영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육체를 하나님의 성소 안에 가져옴으로써 성소에 대해 죄악을 범하게 될 것이다—민 18:7.

G. 하나님의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다.

1.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위해 연약하고 어리석고 세상에서 멸시받는 사람들을 선택하셨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은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2.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얻는 것을 보기를 바라지 않으신다. 우리는 다만 주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뿐이다.
3. 우리는 매우 가련하고 연약할지 모르지만, 어떤 형제자매들에게 약간의 도움을 주자마자 또는 몇 사람들을 구원하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을 흠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흠치는 것은 성소에 대해 죄악을 범하는 것이다.
4. 어떤 사람이 영적인 지식과 체험을 더 많이 얻을 때, 영적인 교만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에 의해 일하고 그들 자신의 영광을 구한다.
5.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교만보다 더 가증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일에서 교만보다 더 악한 것은 없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을 ‘버리시고’(삼상 15:23) ‘대적하신다’(벧전 5:5). ‘버리다’라는 말은 누군가와의 관계를 끝내는 것인 반면에, ‘대적하다’라는 말은 사탄에 대해 사용되는 말이다(약 4:6-7).
6. 이 세상에서 사탄의 속임수 아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교만한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른다.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속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갈 6:3.

H. 평범한 죄들은 반드시 제사장들의 심판을 거쳐야 하지만, 성소에 대한 죄악은 하나님께 직접 죄를 범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을 심판하신다.

1. 이것은 성소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성소에 대한 죄악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자신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이것은 매우 엄중한 문제이다. 나는 보혈 아래서 이것에 대해 말할 수 있을 뿐이다. 나는 주님의 용서를 구하며, 또한 형제들의 용서를 구한다.”(위치만 니 전집, 42권, 203쪽)

II.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고’(고전 16:10)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는’(15:58)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길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넣는 일을 하시도록 허락해 드림으로써(엡 3:17상),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자라시고(골 2:19), 우리를 변화시키시며(고후 3:18), 우리로부터 흘러나가 시어(요 7:37-38), 하나님의 경작지이자 하나님의 건축물인 교회(고전 3:9)를 위해 그분 자신을 다른 사람들 안으로 넣는 일을 하시도록 하는 것이다.

- A. 교회는 금과 은과 보석들을 산출하는 하나님의 경작지이다—고전 3:9, 12.
- B.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경작지에서 성장을 갖는다. 그런 다음 이 경작지에 있는 식물들은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귀한 재료들이 된다—고전 3:6-7, 12.
- C. 금과 은과 보석들은 삼일 하나님의 미덕들과 속성들을 지니신 그리스도에 대한 다양한 체험들을 상징한다. 이러한 귀한 재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누림에서 나온 산물이다—고전 3:12, 15:45하, 6:17.
- D.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귀한 재료들은 삼일 하나님, 곧 아버지의 본성과 아들의 구속과 그 영의 변화시키는 일과 관련된다—벧후 1:4, 엡 1:7, 히 9:12, 고후 3:18.

- E. 우리는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금과 은과 보석들이 되어가고 있다—고전 3:12.
1.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금인 아버지의 생명과 본성을 얻고, 아들 하나님 안에서 은인 아들의 구속을 얻으며, 영 하나님 안에서 보석들인 변화를 얻는다.
 2. 이러한 재료들로 건축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이러한 재료들로 조성되어야 한다. 즉 우리는 아버지의 본성과 아들의 구속과 그 영의 변화로 조성되어야 한다.
 3.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본성과 아들 하나님의 구속과 영 하나님의 변화 안에서 성장해야 한다. 이러한 성장이 우리를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금과 은과 보석들로 만든다—고전 3:12, 16-17.
 4. 우리가 영적인 소화 작용과 동화 작용과 신진대사와 함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이 된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귀한 재료들이 된다—요 6:57, 엡 3:17, 갈 4:19.
- F. 하나님의 영원한 목표는 건축물, 곧 유일한 기초이신 그리스도 위에서 귀한 재료들로 건축된 성전이다—고전 3:11-12, 16-17.
1. 신성한 생명의 성장은 하나님의 처소를 건축하기 위한 재료들을 산출한다. 이러한 처소, 곧 교회는 무한하신 그리스도의 증가이자 확대이다—엡 2:21-22, 요 3:29-34.
 2. 먼저 우리는 생명의 성장을 위한 경작지를 가지며, 그런 다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한 건축물을 갖는다—고전 3:9, 마 16:18, 엡 2:20-22, 4:16.
 3.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실지적인 건축은 믿는 이들의 생명이 성장함으로 이루어진다—고전 3:6-7, 16-17, 엡 2:20-21, 벧전 2:2-5.
 - a. 참된 건축은 생명의 성장이다. 우리가 건축된 정도는 바로 우리가 성장한 정도이다.
 - b. 진정한 건축을 하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감소되게 하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증가되게 함으로써 자라야 한다—마 16:24, 엡 3:17.
 4. 우리는 또한 변화시키시는 영과 동역하기를 배워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길은 금과 은과 보석들인 삼일 하나님을 성도들에게 공급하여, 삼일 하나님의 속성들을 그들 안에 넣어 줌으로 그들의 미덕들이 되게 함으로써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아가 1장 10절 하반절과 11절에 묘사되어 있다.
 - a. 변화는 우리 존재 안에서 일어나는 하늘에 속하고 영적이며 신성한 신진대사적인 바뀜이다.
 - b. 교회생활 안에서 변화는 변화시키시는 영에 의해 수행된다—고후 3:18, 롬 12:2.
 - c. 그리스도의 연인들은 교회생활 안에 들어온 후에 그 영의 개조하심에 의해 변화되기 시작한다—아 1:9-16상, 2:1-2.
 - d. 이러한 변화시키는 일에는 몇몇 ‘변화시키는 사람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들은 바로 온전하게 하는 사람들로서 추구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본성을 알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도록 돕는다—아 1:11, 엡 4:11-12.
- G. 나무(타고난 사람의 본성)와 풀(타락한 사람, 육체에 속한 사람)과 짚(생명이 없는 것)으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성소에 대해 죄악을 범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

곧 하나님의 건축물인 교회를 훼손하는 것이다. 그 대신 우리는 금과 은과 보석들로 건축해야 한다—고전 3:12, 16-17.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성소에 대한 죄악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죄 중에 어떤 것은 사람 앞에서 범한 죄이고, 어떤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어떤 것은 일반적인 율법을 범한 것이고, 어떤 것은 성소에 대해 죄를 범한 것이다. 간략하게 말해서, 죄는 일상생활에서 범하는 죄와 일에서 범하는 죄가 있다. 민수기는 우리에게 제사장들의 죄들이 성소에 대해 범하는 죄악들이었음을 보여 준다. 오늘날의 용어를 사용하면 그들의 죄들은 하나님의 일 안에서 범하는 죄들이었다. 보통 사람은 일상생활에서만 죄를 범하지만,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한 가지 죄를 더 범할 수 있다. 대부분의 죄가 일상적인 죄이지만 주님의 일꾼에게는 특별한 죄가 있는데, 곧 하나님의 일 안에서 범하는 죄이다. 우리는 이 일을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일과 관련된 죄는 꼭 교만이나 질투 등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 많은 경우 영적인 위치에서 육체가 나오고, 자아의 뜻이 나오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임의대로 주장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 일과 연관된 특별한 죄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성소에 대한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주님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은 일반적인 죄 외에 성소에 대한 죄를 더하게 된다. 일 안에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과 주권에 관련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일에서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이며 성소에 대한 죄악이다.

나는 항상 다른 사람과 나에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항목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첫째,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둘째, 하나님의 일의 추진은 반드시 그분의 능력에 따른 것이어야 하며, 우리 자신의 능력에 따른 것이어서는 안 된다. 셋째, 하나님의 일의 결과는 반드시 그분의 영광을 위해야 한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요점 중 어느 하나에서라도 실패한다면 우리는 성소에 대해 죄악을 범한 것이다. 자신으로 말미암아 시작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고, 자신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으며, 결국 자신의 영광을 얻게 하는 일은 하나도 없어야 한다.

일의 시작은 반드시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어야 함

집회 가운데 자매들은 형제들을 향하여 머리를 덮는다. 이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사람의 머리가 덮여진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분은 주님이시다. 오직 그분만이 머리이시고, 오직 그분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기에 합당하시며, 오직 그분만이 어떠한 일을 시작하기에 합당하시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두세 명의 형제가 의논하여 일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일이 영적인지 아닌지, 그 결과와 가치가 얼마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지의 여부는 당신이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에 달려 있지 않고, 우리 자신이 시작한 일은 얼마이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얼마인지에 달려 있다. 당신이 시작한 것이 적을수록 그 일은 더욱 영적이고 더욱 가치가 있으며 더욱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나는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할 필요가 없음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정하시며, 나는 어떤 일을 제안하는 것을 책임질 필요가 없다. 우리는 항상 이러면 좋고 저러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일정표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조언자가 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다만 그분의 뜻을 지키기만 하면 되며, 그 일이 그분의 뜻인지 아닌지를 발견하기만 하면 된다.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 반드시 그분의 뜻이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만 있어야 한다. 당신과 나는 그 무엇도 시작할 권리가 없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만이 그분의 모든 일의 유일한 시작이어야 한다.

나는 이 지역을 책임지는 형제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한 지방에 있을 때, 다만 어떤 일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일이고 또한 그 일 자체도 일리가 있으며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이라면,

당신은 가서 그 일을 하겠는가?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가? 형제들이여, 자신의 뜻에 따라 활동하는 일은 모두가 성소에 대해 범하는 죄이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창하고 명령을 내릴 여지가 영원히 없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머리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욥기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렵게 하는 자가 누구냐 ...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욥 38:2-3)라고 말씀하신다. 나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웃음이 나왔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조연자가 되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조연자를 고용하지 않으신다. 바울은 “누가 그분의 조연자가 되었습니까?”(롬 11:34)라고 말한다. 나는 동역자들이 성소에서의 일을 충분히 엄중하게 보지 않을까 두렵다. 여러분이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아마 매우 조심했겠지만, 오늘에 와서는 매우 자유로우며 마음대로 할 만큼 변했을 것이다. 남보다 권위가 더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말하게 되고 남보다 일을 더 지배하게 된다. 이제 갓 주님의 일 안에 들어온 이들은 아마도 주님의 일 안에 있는 지 팔 년, 십 년 된 사람들보다 더 조심할 것이다.

민수기는 거룩한 일과 평상적인 일 사이에 구별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우리는 어떤 일들이 일상적으로 보인다고 해서 거룩하지 않은 상태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 많은 일들이 거룩한 것이며 일상적이지 않다.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침례를 준 적이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처음 침례를 줄 때 당신은 엄숙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다섯 차례, 열 차례 이후에는 평범한 것이 된다. 성소 안에는 어떤 새로운 일이 없다.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곧 임재의 떡(진실병)을 바꾸고 기름을 더하고 향을 태우는 것 등이며, 날마다 그리고 다달이 항상 동일한 일을 한다. 그러나 조금 잘못하면 성소에 대해 죄를 범하게 되어 죽음을 당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된 사람은 모두 그의 일을 평범한 것으로 감히 여길 수 없었다. 주님의 일꾼이 처음 메시지를 전할 때에는 매우 진지하지만, 메시지를 많이 전하다 보면 점차 그것을 평범한 것으로 생각한다. 사람들은 늘 나에게 “당신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내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신약을 읽을 때마다 처음 읽는 것처럼 읽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처음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한다는 것이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속한 그 무엇도 평범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신선할 것인지의 여부는 영적인 것들이 평범한지 혹은 신선한지에 달려 있다.

떡을 떼는 것을 예로 들어보자. 당신이 처음 가서 떡과 잔을 위하여 축사할 때, 당신은 대단히 엄숙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조금도 느슨하지 못했다. 이때 당신은 참으로 제사장과 같았고, 당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이 당신에게 있게 된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당신은 느슨해지며, 영적인 느낌이 그렇게 장중하지 않고, 당신에게 기도와 경배하는 영이 별로 없게 된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능력과 기름 부음을 주지 않으셨음을 알지만, 당신은 이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당신은 영적인 신선함을 잃고 생명의 능력을 잃게 된다. 성소에 대한 죄악으로 인한 세 가지 결과 혹은 형벌이 있다. 첫째,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린다. 즉 사람이 진부하게 된다. 둘째, 영적인 죽음을 겪는다. 심지어 질병이나 육신의 죽음이 있을 수도 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그 범죄를 지속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셋째,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는 심판대에서 성소에 대한 죄악보다 더 큰 죄는 없을 것이라고 깊이 느낀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이 일을 엄중하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 우리의 일의 시작이 자유로울 수 없다. 사람은 오직 그 자신의 뜻이 만족하는 상황 아래서만 만족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에만 만족하실 수 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치할 수 없다. 온 세상의 제물로도 하나님의 뜻을 대치할 수 없다. 당신은 늘 당신의 일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좋고 하나님의 뜻도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연자를 원하지 않으시고 다만 우리가 그분의 뜻을 행하기만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당신이 어쩌면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했겠지만, 당신이 아무리 많은 일을 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계산될 수 있다.

일의 추진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어야 함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추진할 때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려면 시작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과정도

하나님의 뜻에서 나와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여 결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언젠가 나는 홍콩에 갔는데 주머니에 삼백 원이 있었다. 내가 바다를 건너서 구룡(九龍)에서 홍콩까지 가는 데에는 오 전이 필요했다. 나는 어떤 사람에게 돈을 바꾸어 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은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는 삼백 원을 꺼내어 그에게 보여 주었지만 그는 더 많아도 쓸모가 없고 홍콩에서는 홍콩 돈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마치 중국 세관 역시 중국에서 발행한 중앙 지폐만 사용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도 이와 같다. 당신의 주머니 안에 얼마의 돈이 있든지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는 아무것도 살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곧 하나님의 '통화(通貨)'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이다. 심지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안 후에도, 여전히 그 자신의 능력이나 구상이나 비범한 통솔력이나 언변에 의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애쓸 위험성이 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한 예이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일의 시작과 최종 목적이 하나님을 따른 것일지라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과 능력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주님의 모든 일꾼들 각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에 대해서 반드시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

일의 목표가 반드시 영적이어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과 수단 또한 영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육체를 하나님의 성소 안에 가져옴으로써 성소에 대해 죄악을 범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민 18:7)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것은 당신의 능력과 무관하다. 당신이 얼마나 일을 했는지를 묻지 말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힘을 주셔서 한 것인지만을 물어야 한다. 한 형제는 “오직 하늘에서 온 것만이 하늘에 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언젠가 한 자매는, 주님께서 만약 오신다면 우리는 집에 돌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묻겠는데, 우리가 주님께 가는 것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손님으로 가는 것인가? 그 대답은 우리가 주님께에서 왔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달려 있다. 내가 주님께에서 왔다면 내가 주님께 돌아가는 것은 집으로 가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주님께 가는 것은 일종의 방문과 같을 것이다. 하문(夏門)은 나의 집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하문에 돌아간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가 하늘로 돌아가려면, 우리는 반드시 먼저 하늘로부터 왔어야 한다. 만일 사람이 아담에게서 힘을 얻었다면 아담에게로 돌아갈 수 있고 영원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도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일의 결과는 우리가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도록 하는 것임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의 추진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두 가지는 우리와 조금도 관계가 없다. 같은 원칙으로 하나님의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지 우리의 영광이 아니다. 언젠가 내가 어떤 지방에서 메시지를 전한 후에 한 형제는 나에게 “니 형제님, 오늘 저녁 형제님의 메시지는 아주 좋았습니다. 형제님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느끼십니까?”라고 말했다. 나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나에게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며 진정 내가 전한 메시지를 자랑스럽게 느꼈는지를 생각해 보았다. 그런 후에 나는 그에게 “나는 이 문제를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내가 아주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그 문제에 대해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날 저녁 나는 한 가지 일을 배워 알게 되었다. 그것은 곧 당신이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한다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려는 생각을 한다면 당신의 일의 시작과 진행에도 반드시 문제가 있게 된다.

원래 한 가지를 말하지 않았었지만 지금은 말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은 왜 사람들이 행위를 의지하여 구원받을 수 있게 하지 않으셨는가?(엡 2:8-9)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도맡아 하신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얻으시려는 것이다. 당신이 얼마만큼 일을 하면 당신은 그만큼의 영광을 얻게 된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영광을 얻을까봐 당신으로 어

면 것도 하도록 하시지 않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위해 연약하고 어리석고 세상에서 멸시받는 사람들을 선택하셨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은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 얻는 것을 보기를 바라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실 수 있으며, 심지어 그분의 아들까지 사람들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분의 영광을 주지 않으신다. 우리는 다만 주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뿐이다. 우리는 매우 가련하고 연약할지 모르지만, 어떤 형제자매들에게 약간의 도움을 주자마자 또는 몇 사람을 구원하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을 흠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흠치는 것은 성소에 대해 죄악을 범하는 것이다. 우리는 매우 쉽게 주님의 영광을 흠치는 죄를 범하게 된다.

우리 중에 도둑이 되려는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주님의 영광을 흠치는 것이 바로 도둑의 행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외적인 악행을 제하길 원하실 뿐 아니라, 더욱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흠치지 않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선한 분이시며, 우리는 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모든 선한 것을 오직 주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흠치는 것은 곧 성소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다. 성소 안의 임재의 떡(진설병), 등잔대, 분향단 등은 모두가 그리스도이다. 성소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제하면 결코 다른 것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소 가운데서 어떠한 영광도 얻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사람이 만일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언약케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언약케 위의 그룹만 보게 된다. 성막 안에서 보이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된다. 성전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성전 안에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보며, 심지어 희생 제물도 보지 않는다.

오늘의 질문은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갖기에 합당한가이다. 작년에 어쩌면 하나님은 어떤 형제들을 부르시어 그분을 위해 일하게 하셨을 것이고, 어쩌면 당신에게 성령의 부어짐을 체험하게 하셨을지 모르며, 어쩌면 당신이 이기는 생명을 얻었을지도 모른다. 지난 일 년 가운데 나는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훌륭하게 했다고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것으로 인해 그들이 교만한 사람이 될까 두렵다. 나는 어떤 사람이 영적인 지식, 영적인 체험이 증가할 때 영적인 교만도 증가할까 두렵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당신은 자신을 의지하여 일하고 자신의 영광을 구한다. 당신은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들어야 한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을 ‘버리시고’(삼상 15:23) ‘대적하신다’(벧전 5:5). 성경 안에서 이 두 마디보다 더 엄중한 것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 ‘버리다’라는 말은 누군가와 의 관계를 끝내는 것인 반면에, ‘대적하다’라는 말은 사탄에 대해 사용되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교만보다 더 가증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일에서 교만보다 더 악한 것은 없다. 우리는 재 속에 서는 것 외에는 다른 위치가 없다.

이 세상에서 사탄의 속임수 아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교만한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른다.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속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와서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더럽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나는 만일 주님의 피가 나를 덮지 않는다면, 내가 감히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없다고 느낀다. 만일 주님의 피가 나를 덮지 않는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조차도 될 수 없다.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주님의 은혜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어떤 것인가? 당신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보다 거룩한가?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신다면, 당신은 많은 것이 다 더러운 것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며칠 동안 우리는 한 형제를 치리하는 일을 논했다. 나는 매번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두렵다. 나는 만일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 형제보다도 더 나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은혜를 얻은 한 무리 사람들이다. 우리는 오늘 아직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반드시 부활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 오늘 우리는 나사로와 같이 비천하고 무용하여 계속해서 상 아래서 구걸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다만 받아들이는 사람, 곧 진정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뿐이다.

한 가지 불행한 것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이들이 성소에 대해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성소에 대해 범한 죄는 얼마나 악한 것인지! 당신이 만일 민수기 18장을 읽는다면 성소 안의 죄는 대부분 죽음에 이르는 죄이며, 성소에 가까이 가는 죄도 죽음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민 18:1-7). 성소에 대한 죄는 사람의 판결을 거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판결하신다. 성소에 가까이 간 사람은 즉시 죽으며 제사장의 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 많은 죄들이 간

접적으로 하나님께 득죄하는 것이지만 성소에 대해 범한 죄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득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직접 심판하신다. 많은 죄들이 하나님께 간접적으로 범죄하는 것이지만, 성소에 대한 죄는 하나님께 직접 범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소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성소에 대한 죄악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자신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매우 엄중한 문제이다. 나는 보혈 아래서 이것에 대해 말할 수 있을 뿐이다. 나는 주님의 용서를 구하며, 또한 형제들의 용서를 구한다. (*위치만 니 전집, 42권, 193-203쪽*)